

2024 년 6 월 30 일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 12:1-2)

중고등부 미션트립을 계획할 때부터 학생들이 섬김과 교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지혜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자기 삶과 더 나아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좋은 욕구 때문입니다.

지혜서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합니다:

- (1) 하나님을 사랑;
- (2) 두려워함

→ 높은 수준의 존중과 사랑과 친밀하고 싶은 감정을 함의한 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은 지혜는 자기의 삶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소명과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과 피조물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존중하는 만큼의 가치가 내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lifestyle 이 열립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사람과 사건과 세상에 대하여 특별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주도/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험’은 삶의 관점과 자세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의 단기 선교 여행의 기회를 통해 성도님들 또한 어떤 형태의 선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 삶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2.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